

매장문화 개혁 '국민 계몽'

장묘시설 규제완화의 의미와 교계대책

교계 영탑공원등 20여곳 운영-청약중 종단차원 납골공원 설치 관심가져야

그간 대부분의 사찰림은 산림법상의 보전지 중 공익임지(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산림보호림)에 속해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규제를 받아왔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설 및 사설묘지 설치시에도 필요한 화장장·납골당은 설치가능성이 낮아 장례식장은 관련조항이 없어 설치가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산림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공익임지에 속하는 사찰림에도 경관과 역사적 배경 등을 감안한 산림정 심사(사실상 거처지 없음)를 거쳐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내의 묘지공원에도 그 운영에 필요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교계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묘시설의 설치 촉진으로 '화장후 납골안치' 형태의 장묘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납골당 1기의 이용 비용이 6평 규모 묘지 조성 비용의 10~15%에 해당돼 IMF시대에 맞는 매장문화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교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심의관실 문종력 사무관은 "건교부와 농림부의 동의를 얻어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교계들이 앞장서 화장·납골시설을 설치한다면 IMF시대 장례비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묘지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화장률을 높여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안에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상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불교계에는 지난해 10월15일 개원된 부친 석왕사의 종합 '장례예식장'인 왕생극락전 을 비롯 20여개의 장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청약을 받고 있다.

탑과 부도로 이루어져 사찰조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영탑공원'은 △한마음선원 금양·제주·진주지원과 △충북 음성 고심사 등이 조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덕사(일명 '탑림공원') △서울 삼보사 △인천 일광정사 △오봉정사 등이 건립(또는 계획)중이다.

9~17인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가족납골묘 형태의 납골공원은 △대단법인 보현원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일대에 조성중인 종합장묘시설 양평공원을 비롯 △대한불교법화종 교현사 △상랑향수도원 등이 운영중이다.

"도시에는 노숙자가 넘쳐난다는데 농촌에선 일손을 구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영농합숙소를 지어놓고 일꾼들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농촌에서는 하루세끼를 제공하고 3만~6만원을 준다는데도 일손이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농촌뿐 아니라 3D업체에서는 외국의 불법체류자라도 불러들여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서울의 노숙자들은 이런 일 자리를 두고 왜 나 서지 않을까.

"돈 조금 받고 하루종일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는 나 처러리 맘편히 빌어먹는 것이 낫다."

이러한상은 노숙생활에 익숙해지고 무료급식기회가 늘어나면서 근로의욕을 잃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느 택시기사는 우려했다.

"무료급식은 실직자들을 더 무력하게 만들 겁니다."

농촌에 다녀온 한 불자는 말한다.

"지하도에서 자면서 건강을 해치니 농촌에 가서 팔팔러 일하면 건강에도 좋고 보람도 느낄텐데..."

'아침을 여는집'을 운영하는 김동훈

씨(이웃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는 불자들의 "쌀도끼 캠페인"을 호소하고 있다. 2~3백명의 급식을 계획했는데 6~7백명씩 몰려오니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그는 열려했다.

"정부와 부유층에 대한 실직자들의 불만이 쌓일때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불교계는 곳곳에서 실직자들에게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무료급식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취업알선과 취업의욕을 북돋우는 심리상담, 건강돌보기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고픈 이들은 마음이 허할 수 있다. 정부도 2백만에 육박하는 실직자 생계돌기가 밑바진 독에 꿀붓기가 되지 않도록 입체적 대책을 세워야겠다. IMF와의 전쟁, 복받이 되어주는 실직자나 복씨를 삼고 가꾸는 이들이나 서로 부처님 바라보듯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6월을 '상대방 부처님으로 보는 달'로 정했다. "이웃을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7월이 되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어 실직자 돕기

이밖에 △경기도 포천 다보정사 △서울 영각사 △경남 밀양 부은사 등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 △장성 백양사 △서울 봉곡사 등이 납골당 건립을 진행중이다.

불교계는 90년대 이후 장묘시설에 대한 허가취득과 더불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타종교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교계의 장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납골공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납골공원의 운영과 설치는 화장문화와 납골공원의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명부전 등 불교의 사후관이 반영된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도 모색해야 한다.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종단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무상(無常)과 무아(無我) 등 교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화장장이나 납골공원을 포교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장례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1면 '수덕사' 서 이어짐

회향법요식에 앞서 5월25일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황하루에서 정진한 철야 참선은 설정 법장스님등 대중스님과 신도등 2백여명이 동참해 참회를 통한 국난극복의 지혜를 밝혔다. 한편 실직자와 결식아동을 돕기위해 농·축·수·임산물협동조합이 참여해 열린 우리 산물 공동직거래 장터는 동참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모금함에 모아진 상금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에 기탁된다.

■국난극복 참회대회 행사일정

3차: 7월4일(토)오후9시~회향법요식 7월5일(일)오전11시 천태종 관문사(서울)=동체대비 구현철야관음정진

4차: 7월10일(금)오후1시 관음종 대전EXPO 광장=영산대재

5차: 9월22일(화)오후9시~회향법요식 9월23일(수) 총지종 정각사(부산)=진호국가 기원 철야정진

6차: 10월15일(목)오후9시~회향법요식 10월16일(금)오전11시 진각종 총인원(서울)=민족통일 발원 철야유마니반예흥정진

7차: 11월15일(일)오후9시~회향법요식 11월16일(월)오후2시 태고종 선암사(전남 승주)=대참회 관음예문 연비

8차: 11월27일(금)오후9시~회향법요식 11월28일(토)오후2시 법륜종 보현정사(전남 목포)=지역 화합기원 3천배

예산=위영란 김원우 기자

국난극복 수덕사 법회 이모저모

교·정계 인사 다수 동참

○... 쪽빛 하늘을 이고있는 대웅전(국보49호) 앞마당에서 열린 회향법요식에는 응담 조계종원로의원, 인곡 태고종총무원장, 운덕 천태종총무원장, 김성조 진각종총무원장, 무진 원효종총무원장, 정각 법륜종이사장, 재원 조계종 기획실장, 지성 보문종부위원장, 손금광 진언종총무원장 등 종단지도자와 심대평 총남지사, 서석재 정각회장, 함중환 한나라당불자회장, 권오창 예산군수, 이영웅 농업총남대전본부장, 성낙승 불교방송사장, 김광삼 현대불교신문 사장 신광식 불교언론인회회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신도들은 햇볕을 피해 나무와 법당앞등에 수백명씩 무리져 동참했다.

2백여 대중 철야 참선정진

○... 5월25일 밤9시부터 황하루에서 일제에 들어간 철야 참선은 총일 수와 이자 조계종총회회장인 설정스님의 법어 주지 법장스님의 인사말, 선원장스님의 참선의 자세에 대한 설명후 정진에 들어갔다. 상단에는 설정 법장스님 등이 자리하고, 2백여 대중들은 등을 대고 2열 병렬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할중 주경스님(수덕사 교무)이 큰 북을 메고 대중을 점진하는 속에서, 1시간 정진하고 10분 포행을 다시 1시간 정진하고 또 10분 포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정부터 12시30분까지 새참공양은 모두들 꿀맛 같다는 표정들이었다.

부처님 도량같은 마음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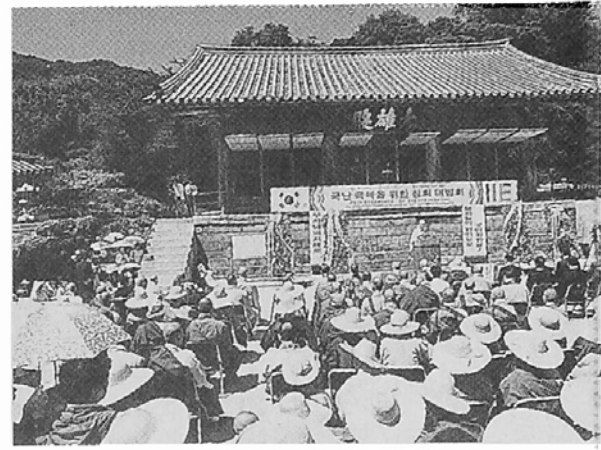
○... 함중한 한나라당불자회회장이 낭독한 발원문은 특히 법회장인 대웅전에 대비시킨 내용으로서 더욱 감동이었다는 분위기. 내용은 "이웃 수덕사 우뚝한 대웅전이 보여주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가정도 담담과 아담의 철근을 견고 하시고, 대들보와 서까래가 맞물리고 문틀과 마루장이 맞물려 지붕을 떠받치는 부처님의 도량같은 마음의 집을 짓게 하시어 모두가 제구실을 찾아 서로 맞물리고 받쳐주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발원했다.

사는 이 파는 이 모두 만족

○... 사찰에서는 처음 열린 농·축·수·임산물 공동직거래 장은 심심함과 저렴한으로 판매자나 구매불자 모두 만족했다. 생물은 물론 가공식품 저장식품 등이 선보여 다양한 장터를 이루었는데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농산물. 이영웅 농업총남대전본부장은 "사찰에서 예불과 법회를 하고 장까지 보는 새로운 생활신행문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불교TV 5일 녹화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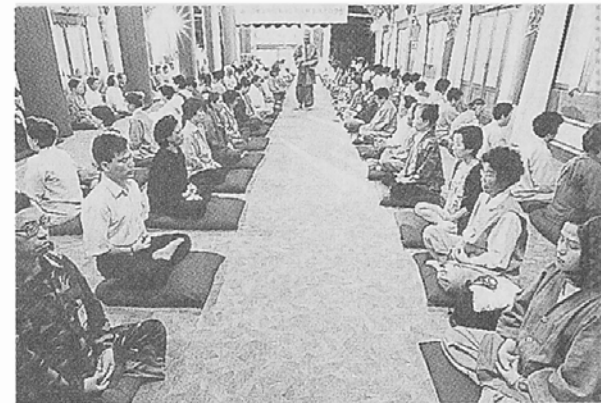
○... 불교TV는 수덕사 법회를 3회에 걸쳐 녹화중계한다. 5일(금) 오전9시10분~11시, 오후10시~10시50분과 12일(화) 오후1시25분~2시15분까지 방송한다.



◇2천여명이 동참한 수덕사 국난극복법회.



◇25일 밤부터 들어간 철야 참선은 조계종 총회회장 설정스님,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 2백여명이 동참했다.



◇황하루에서 6시간동안 진행된 철야정진으로 참회를 통한 지혜를 밝히고 있다.



◇실직자와 결식아동을 돕기위해 농·축·수·임산물협동조합이 참여해 설치된 우리 산물공동직거래 장터가 불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에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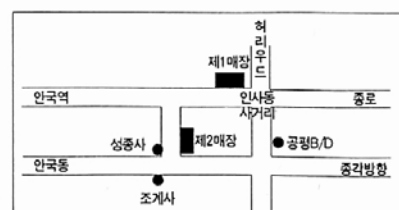


우리옷 "에 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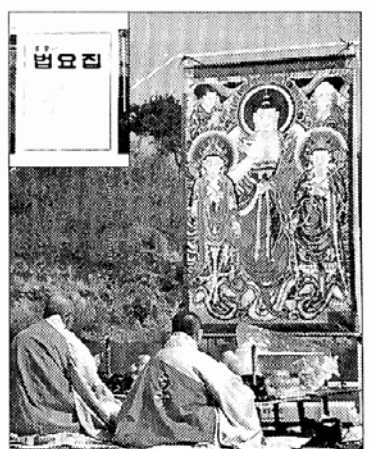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에 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중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 서울 중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패블



- 〈패 블〉
- 규 격: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90만원(패블대 포함)

▶ 패드내용: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암도 큰스님

佛敎布敎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772-9052, FAX : (02)755-0479
(02)672-1333, 723-4599